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손재희 실장(소비자디지털연구실, 3775-9023)  
 작성자 변혜원 연구위원(3775-9027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4. 2.15(목) 11:30부터  
 매수 총 3매

## 보험연구원 · 한국금융소비자학회, 「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」 세미나 개최

- “디지털 금융시대 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 증진이 더 중요해질 것”
- “의외로 낮은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현주소와 개선에 대한 논의”

○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, 한국금융소비자학회(회장 조만)는 2월 15일(목) 오전 10시 『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』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함

### - 프로그램 -

시 간	내 용
10:00 ~ 10:30	(개회사) 조 만 (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)
	(환영사) 안철경 (보험연구원 원장)
	(축 사) 김미영 (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)
10:30 ~ 11:00	(발 표)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 박소정 (서울대학교 교수)
11:00 ~ 12:00	(패널토론) 좌 장 : 성영애 (인천대학교 교수) 토 론 : 박태영 (성균관대학교 교수), 변혜원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 이정민 (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), 정재승 (금융감독원 팀장) ※ 가나다순

○ (주제발표)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‘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’라는 주제로 디지털 금융시대에 금융소비자가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시하고, 현 상황에 적합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

• (디지털 금융의 문제)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가 금융을 더 쉽고, 빠르고,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

- (i)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히려 금융 사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, (ii) 금융사기나 불공정 거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, 무엇보다 (iii) 디지털 금융으로 개선된 금융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은 과소비, 과다대출, 청소년 도박, 부적절한 수준의 위험보유 및 너무 잦은 주식거래 등 부정적 금융행동편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

• (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) 금융이해력은 건전한 금융의사결정을 통해 개인의 금융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인지, 지식, 기능, 태도의 조합이며,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디지털 금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, 우리나라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- 2022년 금융감독원·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, 우리나라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나,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(디지털 금융이해력 70점(최소 목표 수준) 이상 비율: OECD 평균 34%, 우리나라는 10%)

-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금융 활용은 높은 수준이며,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낮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디지털 금융 소외뿐만 아니라 잘못된 활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

• (제언) 디지털 금융의 바람직한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, 정부, 소비자 교육계 모두가 디지털 금융 및 금융이해력 개선에 힘써야 함

- (i) 포용적 디자인을 통해 디지털 취약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, (ii) 안전

한 디지털 금융 사용을 위한 디지털 및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, (iii) 금융활용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므로, 금융이해력의 조기교육이 필요하고, (iv) 디지털 금융앱은 소비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되고, 규제되어야 함

-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, 제도개선 및 소비자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금융이해력의 증진이 동시에 균형감 있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임

첨부: 발표자료 1부. 끝.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